

베트남 중앙은행(SBV),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인가서류접수증(Confirmation Letter) 발급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제출한 하노이지점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 5월 7일(수) 발급하였다. 이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약 6년 만에 거둔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다. SBV는 자국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인가 발급을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2회), 총리 회담(1회), 금융당국 및 외교부 고위급 면담과 인가지원 서한 발송 등 전방위적인 금융외교를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산은 역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접수증(CL)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 베트남 은행 수: [법안: 총 45개] 외국계 9개 中 한국 2개(신한우리), [외은지점: 총 50개] 한국 9개

** 베트남 은행 최종인가: [법안: '17.9월] 싱가포르 UOB, [외은지점: '21.1월] 태국 Kasikorn Bank

이 접수증(CL)은 베트남 금융당국이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예비인가 및 본인가 발급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비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첫 공식문서이다. 산은은 “이번 하노이지점 CL 획득은 산은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6년간 다각도로 기울인 노력의 산물인 만큼, 향후 인가 발급 완료까지 남아있는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점포를 설치(미국 62개, 베트남 55개)한 국가로, 1만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약 20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무역 3위 국가로 발전하기까지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교민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계 은행의 추가적인 베트남 진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향후 본인가 발급 후 산은 하노이지점이 설립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은행은 '17.7월 은행(현지법인) 설립 인가 신청 → CL 발급 대기 중
(현재 베트남에 하노이·호치민 2개 지점 설치·운영 중)

※ 산은 및 기은 베트남 해외점포 신설 관련 주요일정

[인가] ('17.7월) 기은 법인 인가 신청 → ('19.7월) 산은 하노이지점 인가 신청 →
('25.1월) 기은·산은 인가 재신청 → ('25.5.7일) SBV, 산은 지점 인가서류접수증(CL) 발급

[정상회담] ('18.3월) 한-베 정상회담(하노이) → ('23.6월) 한-베 정상회담(하노이)

[고위급 면담] ('20.6월) 주베트남대사-SBV 총재 면담 → ('23.9월) 금융위 부위원장-SBV 부총재
면담 → ('24.7월) 한-베 총리회담 → ('24.9월) 금융위 상임위원-SBV 부총재
면담 → ('24.11월) 금융감독원장-SBV 부총재 면담 → ('24.12월) 주베트남대사-
SBV 부총재 면담 → ('25.4월) 한-베 외교장관회담 등

[금융위원장 서한] ('20.7월) 1차 서한 발송(베트남 총리 앞) →
('24.11월) 2차 서한 발송(SBV 총재 앞)

[산은·기은] ('23.6월) 베트남 부총리-산업은행 회장-기업은행장 면담(하노이) →
('24.7월) 베트남 총리-산업은행 회장-기업은행장 면담(서울) →
('24.11월) 베트남 수석부총리-기업은행장 면담(하노이) →
('25.5.9일) SBV 부총재-산업은행 회장 면담(하노이)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사무관 김재민 (02-2100-2891)
공동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책임자	공사참사관 이재면 (+84-76-607-3069)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책임자 담당자	국 장 박성주 (02-3145-7890) 팀 장 최윤선 (02-3145-7901)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책임자 담당자	실 장 김춘호 (02-787-6071) 팀 장 조남규 (02-787-607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베트남에서 41개 한국 금융회사가 55개 현지점포* 운영 중

* 지분을 50% 초과 현지법인·지점·사무소를 포함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자지점은 제외

○ 진출 형태는 현지법인 26개, 지점 10개, 사무소 19개

【 베트남 진출 한국 금융회사 현황 】

업종		진출형태	세부현황(가나다順)
은행(20)		현지법인(4)	광주(JB증권), 수출입(리스금융), 신한, 우리
		지점(9)	국민(2), 기업(2) , 하나(2), 농협, 부산, iM뱅크
		사무소(7)	광주, 농협, 부산, 산업 , 수출입, 전북, iM뱅크
보험(11)		현지법인(6)	DB손해보험(2),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지점(1)	서울보증보험
		사무소(4)	KB손해보험(2), 삼성생명, 현대해상
금투(16)	증권(8)	현지법인(7)	KB증권(2),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무소(1)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8)	현지법인(3)	미래에셋, 피데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사무소(5)	골든브릿지, 우리, 키움, 피데스, KB
여전(8)	카드(4)	현지법인(3)	비씨, 롯데, 신한
		사무소(1)	롯데
	캐피탈(4)	현지법인(3)	롯데벤처스, 미래에셋, 산은
		사무소(1)	JB우리

※ 한국 진입 베트남 금융회사는 없음